어느덧 23년, 당차게 달려온 제주여성영화제

오는 9월 28~10월 2일 '거센 바람에 더 높게' 슬로건 내걸고 CGV 제주서

초청작·본선진출작 등 상영 씨네토크 프로그램 등 다채

제주여민회가 2일 공개한 제23회 제주여성영화제 공식포스터. 거센 바람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강산 작가의 작품이다.

'거센 바람에 더 높게'.

올해 23회째를 맞는 제주여성영화제가 내건 슬로건이다.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제주여민회는 "거센 바람에도 더 높게 날아 말하고, 노래하고, 꿈꾸고, 연대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어느덧 23회를 맞으며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CGV 제주점 6층에서 열리는 제주여성영화제에서는 최근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를 여성영화를 통해 마주하게 된다.

제주여민회는 최근 제주지역작품 초청작과 요망진당선작(단편 경선) 본선 진출작 등을 선정하며 차근차근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제주여성영화제에서는 제주지역작품초청공모 선정 작품 상영, 요망진당선작(단편 경선)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비롯 감독과의 대화, 스페셜 토크 등 씨네토크 프로그램이 예정돼있다. 제주씨네페미학교, 집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섹션도 꾸려진다.

제주지역 여성서사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제주지역작품 초청작'의 올해 상영작은 김유리·이지이 감독의 '덮어놓고 파당보민'(52분, 다큐멘터리)과 김지혜 감독의 '땅은 늙은 줄 모른다'(29분, 극영화)이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정체성부터 가족, 연대, 이혼, 빈곤, 청소년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350편의 응모작에서 추려진 '요망진당선작(단편 경선)' 본선 진출작은 10편이다. ▷가을이 여름에게(감독 원은선) ▷그렇고 그런 사이(김인혜) ▷꽝(유소영) ▷나들이(이유진) ▷마이에그즈(김소이) ▷모서리(송희숙) ▷순자와 이슬이(김윤지) ▷언니를 기억해(조하영) ▷열 번 찍어 쓰러진 나무(김민진) ▷힘찬이는 자라서(김은희) 등이다.

이 작품들은 제주여성영화제에 상영돼 본선 심사위원과 관객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요망진 작품상' 1편과 '요망진 관객상' 1편이 가려진다.

한편 제주여민회는 본영화제를 앞두고 오는 13일 오후 3시 CGV 제주 6관에서 제주씨네페미학교 '미리 만나는 여성영화 상영회'를 진행한다. 상영작은 '바운더리'로, 윤가현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무료 상영이지만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31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 ᄀᆞᆯ멘. "아고 누님, 누님이 물 질어옵데강?"
ᄌᆞᆷ네 ᄀᆞᆯ앐저, "기여 ᄋᆞ멩이야, 물 하영 질언와시난 펭상 ᄀᆞᆯᄒᆞ게 닦으라이."
ᄋᆞ멩이 ᄀᆞᆯ멘. "물 넘이 하우다게. 경ᄒᆞ민 펭상에 물 ᄆᆞᆫ 비왕 걸레질 ᄒᆞ쿠다."
걸레 발로 ᄇᆞᆯ랑 왓닥갓닥 ᄒᆞ멍 닦으민 ᄌᆞ미나컨게마씀."
하르바지 ᄀᆞᆯ멘. "아고 ᄋᆞ멩이야, 경 아귀염ᄒᆞ는게 아니여. 이추룩 ᄒᆞ멍 닦아사 ᄒᆞᆫ다. 경ᄒᆞ곡 그디 낭가젱이 이시녜? 하르벰이 생이총 멩글아심디 느도 ᄀᆞᆮ이 멩글게. 생이총 멩글앙 느 주켜. 생이총 멩글멍 놀레라도 불러보카 ᄒᆞ는디 어떵 들어볼탸? 경ᄒᆞᆫ 후제 제주신화 '가문장아기' 이왁을 ᄒᆞ여보카 ᄒᆞ엀져. 느데덜 어떵ᄒᆞ냐?"

*** 제주어 풀이**

*물 질어옵데강? : 물 길어왔어요?
*ᄀᆞᆯᄒᆞ게 닦으라이 : 깨끗하게 닦아라. *넘이 하우다게 : 너무 많네요.
*ᄆᆞᆫ 비왕 : 다 비워서. *ᄒᆞ쿠다 : 할게요. *ᄇᆞᆯ랑 : 밟아서.
*ᄌᆞ미나컨게마씀 : 재미있겠네요. *아귀염ᄒᆞ다 : <움직> 얌체 짓 하다.
*이추룩 ᄒᆞ멍 닦아사 : 이렇게 하면서 닦아야.
*낭가젱이 이시녜 : 나뭇가지 있지?
*멩글암신디 : 만들고 있는데. *느도 ᄀᆞᆮ이 : 너도 같이.
*멩글게 : 만들자. *멩글앙 느 주켜 : 만들어서 너 줄게.
*들어볼탸? : 들어볼래? *경ᄒᆞᆫ 후제 : 그런 다음에.
*ᄒᆞ여보카 ᄒᆞ엀져 : 해볼까 한다.
*느네덜 어떵ᄒᆞ냐? : 너희들 어떻니?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길천 작 '붉은 구럼비'

고길천의 강정 기록화 '붉은 구럼비'

예술공간이아 전시실에서

고길천 작가가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작업해 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기록화 84점을 선보이고 있다. 예술공간이아 전시실2에서 2일 개막한 고길천의 강정 기록화 '붉은 구럼비' 전시를 통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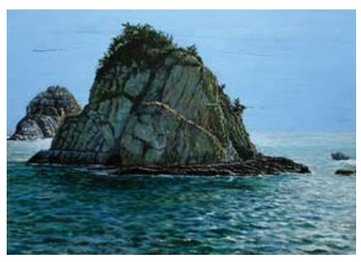
전시작은 아크릴 물감, 오일바, 사진 콜라주 등 혼합재료를 사용한 대형 크기의 판넬 작품 11점과 73점의 목탄화로 구성됐다.

도록 속 '작가의 글'에 따르면 목탄화는 시기별로 나눠, 주로 상황을 패러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했다. 회화 작품 11점에 대해선 "내 마음에 중요하게 남겨진 모습이나 해군기지로 인해 변한 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 아트스페이스·씨에서 개최되는 이진경 작가의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더 좋은 생태환경 함께 고민"

'생명-해양-평화' 주제 다섯 번째 국제해양예술제 오는 13일까지 돌담갤러리


오승익 작 '오륙도의 기억'

'생명(Life)-해양(Ocean)-평화(Peace)'라는 주제를 내건 제5회 'IOAF 2022 국제해양예술제'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 돌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안ACS(Arts Culture and Science)가 주최하고 IOAF조직위원회와 IAOA(국제해양예술협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곳에서 형성된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더 좋은 생태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18개국에서 예술가·디자이너·대학원생들이 작품을 출품, 125점이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전시장에선 18개국의 어린이 작품과 해양관련 100여점은 디지털 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제주에선 고예현, 고재만, 김지환, 목정훈, 문춘심, 박린준, 박지혜, 박창범, 박한종, 부서연, 부윤자, 양계실, 양원석, 오승익, 이계나, 이수진, 장은철 등 17명이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한편 IOAF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계층의 예술가들의 예술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주 전시가 끝나면 오는 11월 중국 상하이 중국항해박물관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감물에 물든 제주풍경

현민정 작품전, 갤러리 벵디왓

현민정 작 '일렁이는 제주풍경'

현민정 작가의 작품전 '일렁이는 제주풍경'이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벵디왓 여덟 번째 전시로 기획돼 3일부터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현 작가가 감물염색 천에다 제주 풍경을 담은 2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현 작가는 "제주 바다는 무한한 풍경을 품고 있는 어머니여서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면 저절로 마음속에 숨어있던 삶의 기억들이 춤을 춘다"며 "제주의 풍경이 별보다 더 빛나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기를 간곡히 빈다"고 전했다.

한편 현 작가는 감물천연염색과 섬유예술의 융합 기법을 적용한 개인전과 단체전을 꾸준히 열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은지기자